'전주시네마펀드 참여하세요'

전주국제영화제, 30일까지 극영화 · 다큐멘터리 공모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저예산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기획 · 개발을 지원하는 '전주시네마펀드 프로젝트'를 공모한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저예산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기획 · 개발을 지원하는 '전주시네마펀드 프로젝트'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이며, 대상은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로 공동 제작 및 외부 투자가 가능한 작품이다.

극영화는 초고 이상의 시나리오를 보유한 제작비 4억원 규모의 저예산 장편영화, 다큐멘터리는 제작 진행 상황 70% 이하의 장편 기획물이면 응모할 수 있다.

전주시네마펀드는 독창적인 프로젝트를 발굴 · 지원하기 위해 전주국제영화제가 운영하는 기금으로, 연간 10편 내외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1차 기획개발비를 받아 개발과정을 거친 후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 영화산업 관계자들에게 소개된다.

이때 최종 심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프로젝트에 한해 2차 개발지원금을 시상한다.

접수는 전주프로젝트마켓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편 2017 전주시네마프로젝트에 선정된 이동휘 · 이상희 주연의 '국도극장'(감독 전지희)과 2018 선정작인 '불숨'(감독 고희영)은 내년 5월에 열리는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뉴시스

"생사의 기로에서도 열정적 창작에 박수를"

전북신문학상 이근풍 시인 선정… 시상식은 17일 전주 백송회관서

이근풍(82)시인이 한국신문학협회 전북지회(지회장 김용완)가 주관하는 제7회 전북신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올 3월에 펴낸 시조집〈세월의 물줄기 따라〉이다.

장태윤(시인) 심사위원은 "이근풍 시인의 시는 향토색 짙은 동양적 정서를 노래하여 고향과 모성애의 회귀 정신을 구현하고 있으며, 아무리 복잡한 대상이라도 단형구조의 기법으로 쉽게 독자들이 다가갈 수 있는 영토를 넓혔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 심사위원은 이어 "이근풍 시인은 우리 겨레의 전통을 가장 오랜 기간 지켜온 시조창작에 열성을 보여 왔다. 특히 노구(老軀)에 암까지 수술하여 생사의 기로에 있으면서도 작품 창작에 열의를 보내온 것에 찬탄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근풍 시인은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고 있는 한 시 창작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누구나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하며,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시를 쓰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이근풍 시인은 임실 출생으로 전북대 상대를 졸업하고 경찰공무원으로 35년간 봉직하다 정년 했다. 계간 '오늘의 문학' 16집에 '할미꽃' 등 4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왔다. 한국문협, 전북문협, 전북시인협회, 경찰문학회, 임실문학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에게 쓴 편지', '가슴에 고인 사랑', '세월의 물줄기 따라' 등 17권의 시집과 1권의 시조집을 발간했다.

한편 시상식은 17일 오후 5시 전주 백송회관에서 신문학 제11집 출판기념회와 열리며, 수상자에겐 상패와 함께 1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주어진다. 또한 시상식 전에 문학평론가 정휘립 박사를 강사로 초빙 '모노 산달로스-외짝신의 영웅들'이란 주제로 인문학 특강이 열리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주시청 노송광장에 회원 시화 21편이 전시된다.

/김재훈 기자

'동리대상' 이보형 판소리 연구가 수상 영예… 판소리 진흥 · 발전 기여 공로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인 '제28회 동리대상' 시상식이 고창동리국악당에서 6일 성대하게 열렸다.

올해 동리대상은 1960년대부터 판소리 진흥에 기여해 온 이보형 판소리연구가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이보형 판소리연구가를 대신하여 자제인 이충휘씨가 수상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김영자 명창, 이난초 명창 등 국악인들의 축하무대도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보형 연구가는 1935년 전라북도 김제군 만경면에서 출생하여 연세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음악을 전공, 나운영 교수에게 서양음악 작곡을 배웠다.

어려서부터 우리 음악에 관심을 갖고 한국국악학회, 국립국악원, 국악예술학교에 드나들며 한국 전통음악 이론을 연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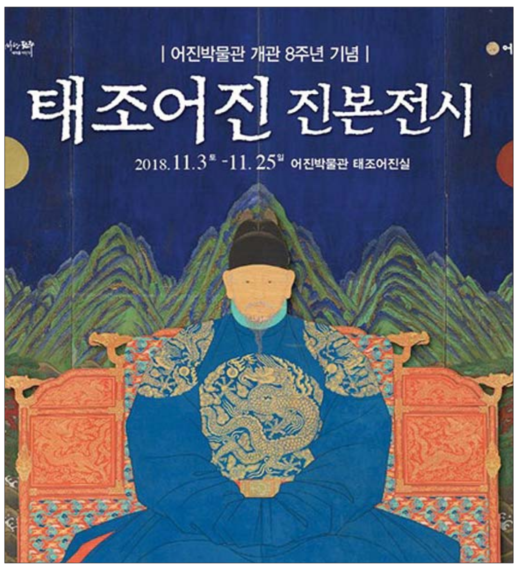
특히 우리 전통 음악 전 분야를 아우르며 평생 연구에 매진해왔으며, 판소리 음악학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이 연구가는 판소리 음악 연구의 전 분야의 이론을 정립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후속 연구들은 그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1970년대 월간 '뿌리 깊은 나무'의 발행인 한창기의 후원으로 매주 실시되었던 판소리 감상회(총 100회까지 진행)를 주도함으로서, 판소리 완창(完唱) 이라는 새로운 공연 문화의 흐름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판소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199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고음반연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20세기 전반의 SP음반을 발굴 · 연구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서울대, 한양대, 부산대, 한국학 중앙연구원 등에서 음악학을 강의하며 후학양성에도 매진하여 평생에 걸친 그의 판소리 관련 연구는, 판소리가 인류무형문화재로 우뚝 서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동리대상'은 고창군과 (사)동리문화사업회가 동리 신재효 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판소리 진흥에 업적을 남긴 연창자, 고수, 판소리 연구가 중 한 분을 선정하여 매년 상장과 상금을 수여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어진박물관 개관 8주년 기념 '태조어진 진본 특별전'



전주 어진박물관은 개관 8주년을 맞아 조선 태조 이성계의 어진(御眞) 진본을 오는 25일까지 전시한다고 밝혔다.

전주 한옥마을 내 경기전 경내에 자리하고 있는 어진박물관은 평소에는 모사본을 전시하지만 매년 개관일(11월 6일)에 맞춰 진본을 전시하고 있다.

태조어진은 조선 건국 후 1410년(태종 10년) 전주에 경기전을 건립하고 태조어진을 봉안했다. 이후 1872년(고종 9년) 구본이 낡아짐에 따라 새로 모사해 모셨다. 전주 경기전(慶基殿)에 봉안된 태조 어진은 현존하는 유일한 이성계의 초상화로 2012년에 국보 제317호로 승격됐다. 진본은 1872년(고종 9년)에 그린 것으로 비단에 채색한 작품이다. 또 일월오봉도(전북 유형문화재 제224호)도와 임금의 나들이 때 왕의 위험을 높이기 위해 의장대가 들고 따랐던 의장물인 용선, 봉선도 함께 전시한다.

일월오봉도는 태조 어진을 경기전에 봉안할 때 제작된 것으로, 다른 일월오봉도와 달리 특이하게 산 양편에 폭포 그림이 없다. 어진 뒤에 펼쳐진 일월오봉 병풍은 경기전의 것이 유일하다.

/뉴시스

전라도 정도 천년, 조선왕실 문헌 정수 만난다

전주 특별전 19일까지 전북대서 보물급 문화재 등 19점 전시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조선왕조의 발상지에서 조선왕실 문헌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가 열린다.

6일 개막한 제2회 세계 한국학 전주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전북대박물관(관장 김성규)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관장 김건곤)이 함께 마련한 '조선의 국왕과 왕실 본향 전주' 특별전이 19일까지 전북대박물관 3층 기록문화실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특별전은 '나라와 임금', '국정과 외교', '문예와 교양', '의례와 행사', '왕실 본향 전주', '왕조의 여운' 등 6개 소주제로 나뉜다. 유네스코로부터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보인소의궤(보물 제1901-2호), 경모궁의궤(보물1901-2호), 정조어제어필, 인조대왕실록, 선원록 등 등 보물 2점을 포함해 모두 19점의 사료적 가치와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전라도 정도 천년에 조선왕조 발상지 전주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조선왕실 문헌의 정수와 왕실 본향으로서 전주의 위상을 볼 수 있는 자리다.

김성규 전북대 박물관장은 "올해는 전라도로 이름이 지어진지 천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서 전주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